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임재범 신곡 발표

가수 임재범(46)이 생일인 14일 디지털 싱글 '사랑이라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1월 발표한 '겨울편지' 이후 약 2년 만의 신곡인 '사랑이라서'는 박효신의 '바보', 테이의 '닮은 사람' 등을 쓴 작곡가 조우진 씨의 곡이다.

노래는 끝내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하늘로 떠나간 연인에게 보내는 가사를 담고 있어 슬픈 정서가 가을 분위기와 잘 어울린다.

1986년 시나위 1집 보컬로 출발한 임재범은 1991년 솔로로 전향했다. '고해', '비상', '사랑보다 깊은 상처', '너를 위해' 등의 히트곡이 있다.

'원조 트로이카' 문희 38년만의 외출

"배우 6년간 200여작품 출연 도살장 끌려가는 기분이었죠"

"이제 세 아이 모두 출가시켜서 자유인이에요. 지금부터 할 일이 정말 많아요."

1960년대 은막의 스타 문희(62·본명 이순임)가 15일 오전 방송된 KBS 2TV '여유만만'에 출연해 그간의 인생 스토리를 들려줬다. 1971년 결혼과 동시에 은퇴했던 그가 TV 토크쇼에 나온 것은 38년 만이다.

문희는 "내가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카메라 울렁증이 심해 그동안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 또 우리 애들이 굉장히 보수적이라 내가 방송에 나가는 것을 싫어해 피한 것도 있다"며 "오늘도 애들한테 혼날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애들이 하라는대로 했지만 이제부터는 내 인생은 내가 살려고 한다"며 웃었다.

1971년 결혼과 동시에 은퇴
남편 잃고 2년간 두문불출도
"이제부터는 내 인생 살아야죠"

지난 8일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레드카펫 행사에 참여했던 문희는 "너무 짧은 기간 연기를 했기 때문에 날 영화배우라고 하면 쑥스럽다"면서도 "4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많이 기억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것을 보면 참 감사하고 고맙다"고 말했다.

1965년 18세에 데뷔한 그는 6년간 200여 편의 작품에 출연하며 남정임, 윤정희와 함께 1960년대 여배우 트로이카 1세대를 이뤘다.

"1960년대는 우리나라 영화의 전성기였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너무나 많은 영화를 찍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영화를 나랑 여배우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찍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당시에는 의상, 메이크업 등을 모두 배우가 혼자서 해야했어요."

그는 "내가 좋아하는 작품은 '초우', '흑맥' 등인데, '미워도 다시한번'이 내 대표작이 됐더라"며 "발랄한 연기도 많이 했는데 '미워도 다시한번'에서의 청순가련한 이미지가 너무 강해 그게 내 대표적인 이미지가 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1971년 당시 장강재 한국일보 회장과 결혼하며 은퇴한 그는 "6년간 매일 밤샘 촬영하고 잠잘 시간도 없이 일하면서 너무 지쳤다. 솔직한 얘기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래서 결혼과 동시에 은퇴를 선언했다"고 말했다.

장 회장과의 사이에서 2남1녀를 둔 그는 "연기를 그만둔 것에 대한 우울증이나 후회는 전혀 없었다. 아이들 키우고 사느라 정신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1993년 장 회장이 세상을 뜨면서 인생 최대 위기를 맞이했다.

"남편 돌아가신 후 2년간 두문불출했어요. 바깥을 안 나갔어요. 그때 애들은 다 외국에 있었는데 큰 집에 혼자 있기가 무섭고 싫어 근처에 작은 집으로 이사가서 살았어요. 그러다 1995년에 주변 권유로 이화여대 최고경영자 수업을 들으며 첫 외출을 했죠."

그는 "첫 수업 날 취재진이 너무 몰려 수업이 되지 않을 정도였다. 2년 만에 밖에 나온 40대 후반의 미망인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정말 여러 가지로 자존심이 상했다. 혼자라는 게 부끄러웠고, 내가 남편을 관리를 잘 못해서 남편이 빨리 갔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고백했다.

언론사의 안주인답게 그는 평소 신문이나 잡지를 보며 스크랩하는 것에 취미를 붙여 현재 정식으로 스크랩해놓은 것만 100권이 넘는다.

어느새 환갑이 넘은 그는 "솔직히 60이 됐을 때는 기분이 좀 안 좋았다. 하지만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하게 살면 나이가 무슨 상관이겠냐"며 "근사하게 나이 먹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멋쟁이 사회가 아니겠냐"고 말했다.

문희는 "아직도 날 기억해주시는 분들께 보답하는 것은 열심히, 모범적으로 멋지게 잘 사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 아닐까 싶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패션 관련 책 낸 이혜영

"최대한 쉽게 패션 노하우를 전하고 싶은 마음에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패션사업가로 성공한 배우 이혜영(38)이 패션에 관한 책을 내놓았다. 제목 한번 자신만만하다. '패션 바이블'(살림출판사)이다.

이혜영은 논현동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패션 바이블'의 출판 기념회에서 "수년간 노트에 적고 생각했던 것 중 내 체형에 맞는 의상을 고르는 기초 아이템에서부터 귀걸이, 액세서리 등 시행착오를 통해 얻은 노하우를 이 책에 옮겨놓았다"고 말했다.

'패션 바이블'은 18만 권이 팔린 '뷰티 바이블'에 이은 이혜영의 두 번째 책이다. 첫 번째 책의 성공 후 그가 자신 있게 내놓은 이 책에는 '머스트 해브 아이템'을 비롯해, 때와 장소에 따른 스타일링 노하우, 스타와 스타일리스트들의 패션 아이디어 엿보기 등의 팁이 들어있다.

패션의 기본으로 몸매 관리를 꼽은 이혜영은 "몸매 관리라고 해서 마르고, 날씬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탄탄한 엉덩이와 가슴, 곧고 잘록한 허리는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고 옷맵시도 잘나게 한다"며 "누구나 완벽한 몸매를 갖지는 못하기 때문에 체형에 맞는 의상을 잘 입으면 된다"고 말했다.

"다리 길고 예쁘다고 매일 미니스커트 입으면 금방 식상해지는 법이죠"

그는 "옷을 잘 입으려면 무엇보다 자신의 장점을 살려야한다. 하지만 너무 부각만 시킨다면 실패할 확률도 높다"고 말했다.

눈이 예쁘다고 속눈썹을 붙이고 컬러 렌즈까지 낀다든지, 다리가 길고 예쁘다고 매일 미니스커트만 입는다면 그 아름다움도 곧 식상해진다는 지적.

그는 자신이 오늘날 연예계 패션 아이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20대 때 저렴하면서도 다양한 스타일의 옷을 두루 입어본 덕분이라고 말했다.

"어떤 스타일의 옷이든 입고 샀는데, 그러면서 옷을 고르는 요령이 생겼고 이제는 나이와 스타일에 맞게 의상을 선택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됐어요. 10만 원짜리 의상을 입어도 100만 원처럼 보이게 하는 법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20대들에게는 명품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당부하고 싶다. 젊은 나이에 다양한 의상을 입고 구입하면서 노하우를 쌓아야 진정 자신에게 필요한 의상이 뭔지 알게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혜영은 올 가을-겨울 핵심 트렌드로 긴 부츠와 파워풀한 숄더 의상을 꼽았다.

"그러나 유행만을 좇는다면 의상 선택에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영원한 패션 아이콘인 블랙 의상과 유행하는 소품 한 가지를 적절히 조화하는 것 또한 유행에 뒤지지 않으면서 세련돼 보이는 연출법입니다." /연합뉴스